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1. 다음 글에 나타난 '이것' 과 관련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들은 관습적인 삶이나 직무의 노고가 아니라, 기분을 전환시키는 '이것'을 찾는다. 짐승을 잡는 것보다 짐승을 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것' 은 어떠한 물질적 이익도 효용도 없는 행위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불건전한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 지만, 문화 활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존재이다.
 - ② 수행하는 삶을 통해 초월적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 ③ 이해 관계를 떠나서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④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는 존재이다.
 - ⑤ 양심에 따라 인간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2. 다음 글의 관점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강건함과 부드러움과 같이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남녀 역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음양은 어느 하나만으로 만물을 생성할 수 없고, 반 드시 다른 하나를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남녀도 서로 화합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보기⟩-

- ㄱ. 남녀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 ㄴ. 남녀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다. 음양의 원리에 따라 남성 주도로 남녀가 조화되어야 한다.
- ㄹ. '삼종지도(三從之道)'를 현대에도 유지·존속해야 한다.
- 1) 7, 6 2 7, 6 3 6, 6 4 6, 8 5 6, 8

3. 다음 사상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 로 생멸(生滅)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도 그 본체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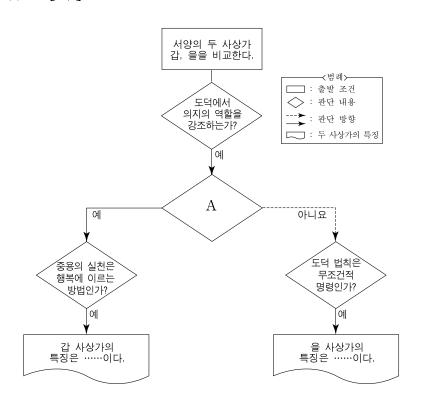
- ①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차별 의식을 버린다.
- ② 자아의 개체성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 ③ 감각을 기초로 선악과 시비를 명확히 구분한다.
- ④ 언제나 산술적 중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5)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 4.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속의 P씨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 행위이다. 측정된 쾌락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욱 크다.

〈문제 상황〉

가뭄이 심해 주민들이 먹을 물조차 부족해지자 주민 회의를 통해 정원에 수돗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P씨는 국어 가는 잔디가 걱정되어 자신의 정원에 수돗물을 주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
- ② 주민들이 얻게 될 쾌락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잔디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④ 주민 합의와 상관없이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 ⑤ 주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 **5.**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잡: 대저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이(理)가 있으니, 그 '이'를 궁구하여 밝히는 것이 바로 격물(格物)이다. 책을 읽어서 도의를 강구하여 밝히고, 혹은 사물에 응하여 그 마땅함과 그름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모두 궁리(窮理)이다.
 - 을 : 이(理)는 마음[心]의 이치이다. '이'가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孝)가 되고,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忠)이 된다.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끝이 없을지라도 어느 하나 나 의 한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다.
 - ① 갑은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고 본다.
 - ② 을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참된 앎에 도달한다고 본다.
 - ③ 갑은 마음[心]과 이치[理]를 하나로, 을은 둘로 나누어 본다.
 - ④ 갑은 도덕적 수양으로, 을은 지식의 확충으로 성인이 된다고 본다.
 - (5) 갑, 을은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6. 갑, 을 두 사상가를 비교한 그림에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도덕적 덕은 타고난 성품인가?
- ② 습관은 도덕성 형성에 필요한가?
- ③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중시하는가?
- ④ 의무는 실천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⑤ 옳고 그름은 행위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7. 다음 사상가가 주장한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현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공식적인 사회의 전체 상부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똑바로 설 수도 없다. …(중략)…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개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전 구성원의 책임과 계획에 따라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

- ① 국가 기능의 최소화로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 ②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누구나 필요한 만큼 분배받게 된다.
- ③ 경제적으로 평등한 소농에 의해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된다.
- ④ 국가의 중재로 노사 간 협의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 ⑤ 의회를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된다.

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도 거짓일 수 있다.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발생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만이 확실할 것이다.

- ① 진리의 보편적 기준은 실용성에 있다.
- ② 의지의 역동적 힘이 세계의 본질이다.
- ③ 객관적인 경험 세계가 진리 추구의 출발점이다.
- ④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
- ⑤ 참된 지식의 토대는 사유 능력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9~10]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예치(禮治)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 ② 을은 상과 벌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 ③ 병은 덕을 바탕으로 한 인(仁)의 실천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갑의 사상을 토대로 폭군(暴君)의 교체를 주장한다. ⑤ 갑, 을, 병은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중시한다.

10.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갑'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전통 윤리의 근간인 효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다. 노부모 부양 기피, 부모 를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① 엄한 형벌을 시행하여 효행을 강제해야 한다.
- ② 본성을 변화시켜 효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③ 도덕과 예의로 교화하여 효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 ④ 효 덕목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므로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
- 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구별하지 말고 효를 행하게 해야 한다.

11. 갑, 을, 병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을은 통치 이념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한다.
- ② 갑, 병은 국가를 개인들 간의 계약의 산물로 여긴다.
- ③ 을, 병은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으로 절대 군주제를 상정한다.
- ④ 을은 국가를 절대 목적으로, 병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⑤ 갑, 을, 병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충돌을 전제한다.

12.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지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② 중 옳은 것은?

수행 평가 문제

- ●문제 : (가), (나) 사상의 인간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가) 인간은 깨달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올바른 삶을 영 위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 라는 의식을 버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데 힘써야 한다.
- (나) 인간이 성(誠)과 경(敬)을 굳게 지켜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 ●학생 답안
- ① (가)는 인간은 자연 앞에서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 ① (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 존엄 사상을 주장하였다.
- ⓒ 이상적 인간상으로 (가)는 보살을, (나)는 지인(至人), 신인

(神人)을 제시하였으며, ② (가), (나)는 공통적으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았다. ···(후략)···

13. 그림은 신문 사설이다. ①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0000년 0월 0일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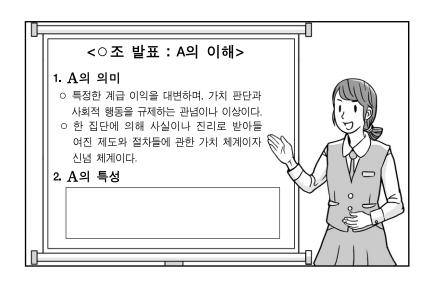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이성과 과학 중심적 사유는 오늘날생명 경시 풍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어떤 사상가는 '생에의 맹목적 의지'가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고, 동물 역시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또 다른 사상가는 삶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것에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중략)… 이제우리는 위의 두 사상가의 논지를 되살려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때다.

- ① 실존적 의미를 이해하여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 ② 종교적 생활 태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 ③ 이성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성 타락을 극복하자.
- ④ 과학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
- 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윤리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자.
- **14.** 다음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무릇 사람의 감정[情]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며, 상(喪)을 당해서는 슬퍼하며, 가까운 사람을 보고서는 사랑 하고, 어진 사람을 보고서는 그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니, 이 것들이 희(喜)·애(哀)·애(愛)·욕(欲)의 네 가지 감정입 니다. 바로 인(仁)의 실마리[端]인 것입니다.

-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마음의 본체인 성(性)이다.
- ② 사단을 실천해 나가면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 ③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④ 사단과 칠정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 ⑤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 **15.** (가), (나) 사상에 나타난 '천(天)'에 대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천(天)이 뭇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 다. 사람들이 마음에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 (나) 소나 말이 네 다리가 있는 것이 천(天)이고, 말의 머리 에 굴레를 씌우고 소의 코를 뚫는 것이 인위이다.
 - ① (가)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자연법칙으로 보았다.
 - ② (가)에서는 인간이 제어하여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 ③ (나)에서는 만물이 지닌 자연 그대로의 본성으로 보았다.
 - ④ (나)에서는 만물의 운행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 ⑤ (가), (나)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다.

16. 그림은 학생이 A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이다. 'A의 특성' 으로 제시될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치 중립적 신념 체계의 성격을 지닌다.
- ㄴ. 의식적으로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ㄷ. 어원으로 보면 '어디에도 없는 곳' 을 의미한다.
- ㄹ. 추종자들을 충원하고자 하며, 그들의 헌신을 요구한다.
- 17, 27, 5 2, 5 4, 5 5, 2

- 17.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세력과 지위가 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재화가 넉넉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다투게 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진다. 선왕은 그 혼란스러움을 싫어하였기때문에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직분을 나누었다.
 - 을: 신하가 임금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천하의 상도(常道)이니 바꿔서는 안 된다. …(중략)… 상도를 폐지하고 현자를 숭상하면 혼란스럽게 되고, 법(法)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등용하면 위태롭게된다.

----〈보기〉---

- ㄱ. 갑은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부정한다.
- ㄴ. 을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예악(禮樂)을 강조한다.
- ㄷ. 갑은 인의(仁義)에 의한 교화를 긍정하나, 을은 부정한다.
- ㄹ. 갑, 을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이기적으로 본다.
- ① 7, ∟
- 2 7, 5
- ③ ⊏, ⊒

- ④ ¬, ∟, ⊏
- ⑤ ㄴ, ㄷ, ㄹ

18.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영혼의 수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나는

- ① 연역적 추론을 진리 추구의 방법으로 보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 ② 인식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 ③ 이성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 ④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 ⑤ 모든 악은 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 19. 다음에서 강조하는 사상적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이 우선인가, 사회가 우선인가?'의 문제에 대해 나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본다. 그런데 집단의 목표와 질 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 ① 사회와 개인을 유기적 관계로 본다.
- ② 개인의 자유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
- ③ 개인을 자기 삶의 자율적 선택권자로 본다.
- ④ 사회를 개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다.
- ⑤ 개인을 자기 이익에 대한 최상의 판단자로 본다.
- **20.** 다음 조선 후기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기린은 선(善)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선함은 공(功)이 되지 않는다. 승냥이와 늑대는 악(惡)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악함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재주가 선할 수 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재주란 능력과 권한을 말한다. 능력은 스스로 노력함에 있고, 권한은 스스로 주인됨[自主]에 있다. 그러므로 선하면 칭찬을 받고, 악하면 비난을 받는다.

- ① 사람의 혈기와 우주의 기를 하나로 보는가?
- ② 사람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 ③ 사람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가?
- ④ 사덕(四德)은 사람이 생득적으로 지니고 있는가?
- (5) 삶의 원동력으로서 사람의 욕구를 인정하는가?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